LG석유화학, 페놀·BPA 투자 강행

페놀 18만톤에 BPA 12만톤 … 2005년 매출액 2500억원 이상 증가

LG석유화학(대표 김반석)이 BPA(Bisphenol-A) 및 페놀(Phenol) 사업 진출을 위한 신규 공장건설에 착수했다.

LG석유화학은 11월6일 전남 여수에서 LG석유화학 성재갑 회장, 김반석 사장 등 대내외 관련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Bisphenol-A 및 페놀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BPA는 휴대폰, 자동차 헤드램프 및 CD, DVD 등에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플래스틱인 PC(Polycarbonate)의 핵심 원료이며, 페놀은 BPA, 페놀수지, 알킬페놀(Alkylphenol) 등의 주 원료로 두 제품 모두 매년 2자릿수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제품이다.

LG석유화학은 BPA 일관생산공장 건설에 총 2200억원을 투자하며, 2005년 상반기에 가동할 예정이다. 생산능력은 페놀 18만톤에 BPA 12만톤이다.

LG석유화학의 BPA 및 페놀 공장 기공식

LG석유화학 김반석 사장은 "기존 NCC 공장에서 생산되는 프로필렌과 벤젠의 고수익 유도품 사업을 전개하게 됨에 따라 회사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본격적으로 제품이 출시되는 2005년부터 한해 2500억원 이상의 매출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내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BPA는 한해 1억3000만달러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LG석유화학은 BPA는 생산량의 대부분을 국내 폴리카보네이트 생산기업에 판매할 예정이며, 그 외 물량은 국내외 에폭시(Epoxy) 생산기업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페놀과 아세톤은 BPA 원료 자가소비분을 제외한 페놀 8만톤, 아세톤 8만톤 등을 국내외에 공급할 계획으로, 일부 물량은 이미 해외기업과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1/07>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